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1

January 2006

| 권두칼럼 |

윤리경영, 환경경영

조 동 성(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경제포커스 |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윤 형 호(서울시장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박 희 석(서울시장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 나 미(서울시장개발연구원 연구원)

| 자치구경제탐방 |

「종로·청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 성 린(종로구청 생활복지국장)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6. 1

차 례

| | | |
|----------------|----|--|
| 권두칼럼 | 3 | 윤리경영, 환경경영 조 동 성(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경제동향 | 9 | 요 약 |
| | 10 | 경 기 |
| | 18 | 고 용 |
| | 25 | 금 융 |
| | 31 | 부동산 |
| 경제포커스 | 39 |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윤 형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59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박 희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 나 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
| 자치구경제탐방 | 77 | 「종로·청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 성 린(종로구청 생활복지국장) |
| 부록 | 89 | 통계표 |

윤리경영, 환경경영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dscho@snu.ac.kr

미래의 사회에서는 사회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윤리경영, 환경경영은 회사가 망하고 사회와 자연이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잘 되는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경영 이론이 될 것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기업의 목적은 이익극대화이고, 사회봉사는 이익을 얻은 다음 그 이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던 경영자나 학자들도 이제는 이익 이전에 윤리경영이 더 필요한 요소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업 경영자에게 정부관리에게 뇌물을 주거나 거래선들과 담합하는 관행을 버리고 윤리경영을 하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난감해 한다. 윤리경영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기업의 이익을 뒷전으로 하고 윤리경영만 하다가 사업기회를 경쟁자에게 빼앗겨서 회사가 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되묻기도 한다.

우리 함께 꿈을 꾸었다고 하자. 꿈속에서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거슬러 1910년대 미국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근교 '디어본'이라는 곳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다. 하루에 3000대씩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포드 자동차 공장의 모습은 실로 대단하다. 엄청난 기계가 굉음을 내면서 작동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자동차를 뽑아낸다. 그런데 기계 틈바구니에 서있는 직공들은 찡그린 얼굴로 아침부터 밤까지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찰리 차플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모던 타임즈 (Modern Times)란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공장장을 만나 "직공들을 인간답게 대우하라"고 인권운동자들이 함직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공장장은 "직공들 잘해주는 거 좋죠. 하지만 그거 다 돈 아닙니까?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다 비용이니까 못하지요. 공장 정문에 가보십시오.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라며 반박을 할 것이다. 이같이 100년 전의 경영자들은 오로지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생산 중심의 경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에 대한 배려는 사치품으로 생각하였다.

1927년 하버드大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던 엘튼 메이어 교수는 '공장의 조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시카고 근교 '호손'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계전기 공장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젊은 여직공 10여명이 일하는 작업장을 선택한 그는 직공들이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작업장의 조명을 높여나갔다. 그러자 직공들이 만들어내는 전구의 개수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1차 실험은 원하는 결과를 거둔 그는 반대로 조명을 낮췄을 때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2차 실험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2차 실험은 실패를 하고 말았다. 조명을 낮추어도 여직공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기는 커녕 계속 올라간 것이었다.

조명이 생산성과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채 실험을 마쳤던 엘튼 메이어 교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연구에 참여한 여직공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으나 -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었다. 당시 20대 초반의 여직공들은 집이나 공장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공장의 부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동부의 유명한 대학에서 할아버지 같은 점잖은 교수가 와서 자신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틈틈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조명과 상관없이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알아낸 것이다.

이 실험은 기업이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때 물리적 조건을 강화시켜 줄 때보다 종업원의 생산성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인사관리 이론의 개발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인사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경영 이론을 배운 경영자들은 인권운동가가 공장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인권을 지키라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전 미국 오하이오 주의 신시내티 시에 있는 미국의 P&G에 가서 영업담당자를 만나보자. 우리가 그에게 "소비자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불량품도 줄이도록 노력해라."라고 소비자운동가가 함직한 요구를 한다면 그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인데, 소비자에 대한 신경을 쓴다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겠냐?"고 되물을 것이다.

하지만 40년대 초 2차 세계 대전 당시 생산량을 대폭 늘렸던 기업들은 전쟁이 끝나자 생산량이 남아돌게 되었다. 이제 소비자가 기업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소비자를 찾고 이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변화는 마케팅이론의 시초가 되었다.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경영 이론을 배운 경영자들은 소비자운동가가 공장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후 미래로 가보자. 미래 기업 앞에서 윤리운동, 환경운동 단체들이 몰려와 피켓을 들고 몰려와 "정부에게 너물을 주지 말라, 환경을 보호하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까? 지금은 윤리경영에 대해 볼멘 소리를 내는 경영자들도 윤리경영, 환경경영이 비용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윤리경영이론, 환경경영이론이 개발되어 있을 미래에는 윤리, 환경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환경경영에 앞서고 있을 것이다. 인사관리나 마케팅관리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필요에 의해 스스로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1920년대까지만 해도 부가가치를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부가가치의 원천을 공장에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던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론은 생산관리였다. 그러나 1930년

대부터는 기계보다 더 중요한 원천으로서 종업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인사관리가 등장했고, 1950년대에 고객을 찾아낸 다음에는 마케팅이 등장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언젠가 기업들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윤리경영이론이 나오게 되고, 경영자는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 언젠가 자연 환경을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찾아낸 다음에는 환경경영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계에서 종업원, 고객, 사회일반, 그리고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점 외연이 확장된다. 생산관리만 알던 경영자들이 1930년대에 인사관리를 통해 직원을 만족시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1950년대 이후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켜 이윤을 추구했다면, 미래의 사회에서는 윤리와 환경경영을 통해 사회적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 환경경영은 회사가 망하고 사회와 자연이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잘 되는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경영 이론이 될 것이다.

SDI